

## 저스템, 마이크론 메모리 재팬과 23억 규모 공급 계약 체결

반도체 습도제어 솔루션 전문기업, 저스템(417840, 대표이사 임영진)이 마이크론 메모리 재팬과 23억 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공시했다.

확정 계약금액은 23억 1693만원으로 이는 작년 매출액 기준 5.17%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계약 기간은 내년 1월 18일까지다.

마이크론 메모리 재팬에 공급하는 제품은 회사의 주력 제품인 N2 퍼지 시스템이다. 저스템은 미세화되고 있는 반도체 공정 내 습도로 인한 소자 손실을 최소화하는 N2 퍼지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발했다. 회사의 제품은 웨이퍼 이송 용기에 N2를 주입해 표면 습도를 5% 이하로 떨어뜨려 웨이퍼 품질을 향상시킨다.

지난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입국제한 등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던 마이크론 메모리 재팬에서 대규모 물량이 발주되어 향후 저스템의 지속적인 수주가 예상된다.

저스템 관계자는 "최근 코스닥 상장을 완료한 후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에 집중해 글로벌 코어테크 솔루션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향후 저스템은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차별화된 기술력을 기반으로 디스플레이, 태양광, 2차전지 소재장비 산업 등 첨단산업으로 비즈니스를 한층 확대할 예정이다.

<참고자료>

마이크론 로고

